

+ 우리들의 정성 【12월 5일(월) ~ 12월 11일(주일)】

대림 제3주일 주일헌금		3,350,800원		특별헌금		1,488,0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724명	
교 무 금 6,970,000원	강한석	실 바 노	고양욱	아 네 스	공순주	율 리 아	공형자	데 레 사			
	곽건영	요 한	권재석	니콜라오	김윤상	바 오 로	김윤정	엘리사벳			
	김종문	니고나오	김지연	세실리아	김진홍		김창호	마 리 노			
	김춘자	마 리 아	김휘숙	젼 마	민승기	요 한	박근태	빅 토 르			
	박미애	세실리아	박은옥	크리스티나	변영신	베네딕도	봉인근	토 마 스			
	서원웅		성효경	세실리아	송미선	안 젤 라	신행심	수 산 나			
	오로규	바 오 로	오인숙	요 안 나	오희용	시 몬	우영수	베 드 로			
	유종석	안토니오	윤영찬	스테파노	은찬기	미 카 엘	이경숙	가타리나			
	이경애	에메리따	이광엽	스테파노	이규범	소 피 아	이금희	율 리 아			
	이낙현	클레멘스	이동호	다 니 엘	이명숙	에스테르	이병욱	레 오			
	이봉남		이수경	마 리 아	이영례	로사리아	이영순	마 리 아			
	이윤영	루 치 아	이종식	다 빋	이한성	아우구스티노	임병도	라 파 엘			
	임완일	베 드 로	장동호	다 니 엘	전병숙	베로니카	정구철	안드레아			
	정미경	글 라 라	정석현	요 셉	정성일	바 오 로	정재승	프란치스코			
	정지은		정찬영	안 젤 라	조윤미	체칠리아	조재훈	프란치스코			
	진은희	데 레 사	최대식	도 민 고	최민규		최영필	요 아 김			
	최은진	마리데레사	한상범	다 니 엘	현향석	글 라 라	홍성희	안 젤 라			
	황화자	젤뚜르다									
감 사 헌 금	김창호	마 리 노	1,000,000	강한석	실 바 노	50,000	김기은	율 리 아	50,000		
성소후원금	주여은	베르디아	100,000	박상준	안또니오	10,000	송미선	안젤라	10,000		
	홍기선	아 네 스	100,000								
토지·건축 헌 금	권재석	니콜라오	50,000	변영신	베네딕도	100,000	최영필	요 아 김	50,000		
	조재훈	프란치스코	50,000	양현정	마 리 아	1,00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64,113,700원	1,250,000원	51,640,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I 미사전례》)

◆ 첫영성체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 한국 천주교회는 첫영성체를 하기에 적합한 연령에 대하여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가 되었을 때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었다가, 중세기에 이르러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숙도가 요구되면서 만 7세에 첫영성체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215년에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영성체를 할 수 있게 규정하여 만 13-14세가 된 어린이들이 첫 고해성사와 함께 영성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첫영성체에 적합한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으로 1910년에는 이성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를 만 7세로 간주하여, 이 나이의 어린이들이 부활 시기에 첫영성체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세 전후에 첫영성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